



▶ 식사하는 마다가스카르의 여인들

제공: WMM

주의 집에 있는 것으로 풍족하라!

세 명의 여인들과 어린아이까지, 계단에 나란히 걸터앉아 밥 한술 뜨고 있는 표정에 근심과 어둠이 엿보인다. 이들은 오늘도 은혜로운 끼를 허락받았다. 얼핏 보아도 그들의 고단한 인생살이가 느껴진다. 내일의 양식은 보장이나 되어 있을까? 누가 이들의 수고롭고 고단한 인생을 체휼하고 위로할 수 있으랴. 전능하시지만 그 전능한 능력으로 무능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그들의 위로자요, 피난처가 된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는 나그네였다.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고, 피곤함을 느끼셨다. 그분은 사생아 취급을 당하시고 짐승 똥과 오물이 있는 마굿간에서 태어나셨다. 그분은 죄가 없시면서도 별거벗겨 갖은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왜 그랬을까? 결국 멸망에 떨어질 고단한 죄

인의 인생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참 안식과 복락(福樂)을 주고 싶으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리고 가장 잘 이해하신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편안히 쉬자. [GNPNEWS]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시편 36:8)

다음 호는 11월 17일자로 발행됩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美,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 만장일치 통과

미국 하원이 홍콩 시위대를 지지하는 법안을 15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홍콩 시위대에 힘을 실어줬다.

미국이 이번에 가결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은 미국이 매년 홍콩의 인권 상황을 평가해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무역 우대를 유지할지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홍콩 시위가 시작되던 지난 6월에 발의돼 5개월 만에 통과된 것이다.

이에 대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하원·상원 모두 홍콩 시민 편에 섰다. 미국이 상업적 이익 때문에 중국의 인권에 관해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계 어디에서도 인권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모든 도덕적 권한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했다.

홍콩 인권법안은 이제 미 상원 투표를 앞두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현재 상원에서도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 상원 표결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법안은 홍콩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한 데 책임이 있는 자들

에 대해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미국은 이 법안과 함께 최루탄, 고무탄 등 미국에서 생산된 경찰 시위장비의 홍콩 수출을 금지하는 ‘홍콩 보호법’도 통과시켰다.

한편, SCMP는 이에 앞서 지난 달 말 미국, 영국, 일본, 대만 등 전 세계 24개국 65개 도시에서 ‘전 세계 연합, 반독재 연맹’을 주제로 홍콩 민주화 시위대를 지지하는 연대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지는 등 홍콩을 지지하고 중국 공산당 독재에 반대하는 연대시위가 벌어졌다고 전했다.

[GNPNEWS]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잠언 13:9)

기도 | 자유를 향한 홍콩 시민들의 간절한 소망에 자유주의 진영의 지지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외롭지 않은 싸움이 되게 하시고, 그러나 폭력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함으로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부여주시길 기도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89)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죠?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가져다준 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까? 성경 읽고, 헌금하는 것입니까? 교리를 정확히 잘 아는 것입니까? 착하게 사는 것입니까?” 맞는 말 같지만 정답이 되기엔 모두 부족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예수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가 인생의 왕 노릇 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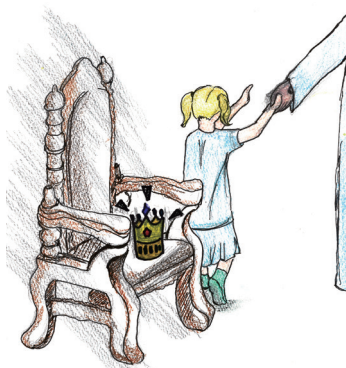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자신 안에 새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완전히 다른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죄를 없애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끔찍하게 죽어야만 한단 말입니까? 그냥 ‘용서하노라’ 한 마디면 안 된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의 죄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역죄이니 당연히 지옥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정도로 큰 죄를 지은 기억이 만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는 그 무엇보다 가장 큰 죄이며, 이 죄로 인해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기만 하면 모든 죄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전히 삶의 주인이기를 고집하십니까? 왕좌에서 내려오면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을 다스리고자 하시는 그분은, 당신을 목숨 걸고 사랑하시고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것을 말



일러스트=김경선

아 다스리기에 충분한 권능과 지혜가 있는 분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GNPNEWS]

* 복음의소리 316전화

삶이 힘드십니까? 갈급한 마음으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난 전화는 삼가주세요. 신앙 상담전화 ☎ 1670-3160

복음기도총서1

내가 구원받게
 품어주는
전도편지
 100

“죽으면 모든 게 끝일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이 정도 죄도 안 짓고 사는 사람 있나요?”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

가: 23,000원 (별책부록 포함)

돋아서 접은 전도편지

*별책부록의 전도편지 100장을 한 장씩 돋아서 언제 어디서나 전도할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야긴과 보이스 032-887-0235**
www.jakinboaz.co.kr

복음의소리 도서출판
 복음과기도미디어

美, 성경 가르치는 공립학교 증가



▶ 캔터키주의 한 고등학교의 '성경과 그 영향'의 수업 시간(출처: washingtonpost.com 캡처)

미국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주들이 늘어나고 있다.

성경적 세계관 교육단체인 tvnext는 최근 애리조나주, 아칸소주, 조지아주, 캔터키주, 오콜라호마주, 테네시주, 텍사스주에서 역사와 문학의 관점에서 선택 과목으로 '성경'을 가르치게 하는 '성경학습과목(Bible Literacy Class)' 법안을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노스 다코타주, 미주리주, 인디애나주, 버지니아주, 플로리다주도 이 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앨라배

마주와 아이오와주,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는 민주당의 반대로 지지됐다.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학생들에게 성경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몇 개의 주들이 성경 교양 과목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나라를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시작이 될 수 있는 대단한 일"이라며 공립학교들이 '성경학습과목'을 도입하는 것을 지지했다.

이 법안은 공화당이 2016년에 그

들의 정치 정강(Political Platform)에 '성경학습과목'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추가하면서 추진됐다.

정강은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교육받은 시민의 개발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기에, 우리는 주의회가 미 고등학교의 문학 과정에 선택 과목으로 제안하는 것을 장려한다."고 명문화했다.

이 내용은 "전통적인 유대 크리스천의 종교적 가치관과 신앙을 공공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하도록 보호하며, 그 신앙을 뒷받침하는 이야기들을 되찾고 올바른 정의한다."는 '프로젝트 블리츠(Project Blitz)'가 2015년에 제시한 발의안과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프로젝트 블리츠는 구약과 신약 시대의 역사와 문학에 대한 공립학교의 선택 과목 시행령인 '성경학습법(The Bible Literacy Act)'이라는 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프로젝트 블리츠는 미국의 문화와 사회, 교육, 일반적 삶을 다시 성경적 가치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다.

[GNPNEWS]

검찰 인권위 설치 방침, 차별금지법 제정 우려

검찰이 총장 직속으로 외부 인권 전문 활동가들을 위원장으로 두는 것을 골자로 한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고 반동성에 전문 매체 KHTV가 최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와 협의해 '인권보호사규칙'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성윤리 문제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침으로 동성애 비판 발언에 형사 처벌로 족쇄를 채우려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는 검찰측 인권위의 위원장 및 위원에 국가인

권위를 비롯해 친 동성애 단체 활동가들을 위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가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입장을 계속 고수해 온 데다가 윤 총장도 지난 청문회에서 친 동성애적 입장을 표명한 바 있어 "차별금지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 7월 8일 청문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두고,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답했다. 당시 '균형법

제 92조 6의 폐기 주장에 대한 입장', '동성애·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입장'이 던져졌는데, 윤 총장은 일관되게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답했다.

당시 동반연·동반교연은 9일 성명서를 통해 "윤 총장의 발언은 차별이란 용어를 사용해, 동성애·동성혼을 합법화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부도덕한 성적 타락 행위를 비판하는 행위를 차별금지법을 통해 역으로 처벌하는 사회가 도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GNPNEWS]

영국 수백 명의 트랜스젠더, "성전환 후회"

10년 만에 성전환자가 3200% 증가한 영국에서 성전환을 후회하는 트랜스젠더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포크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18세 때 성전환 수술을 하고 10년간 남성으로 살아오다 다시 여성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찰리 에반스(28)는 자기와 같이 성전환 수술 후 원래의 성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 '탈전환 지지 네트워크'를 설립했다.

에반스는 영국의 한 뉴스에 출연해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한 뒤, 수백 명의 젊은이가 도움을 요청해

왔다면서 "연령별로는 대체로 20대가 많았다."고 밝혔다. 에반스는 "그들 대부분이 동성에게 끌렸다."며 "반대의 성을 위해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19세, 20세 청소년들과 연락하고 있다. 그들은 성전환 했지만, 더 나은 것을 못 느끼고 있으며, 지금 자신들의 선택지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말했다.

13세 때 자신이 남성이라는 것을 인식한 후 호르몬제 테스트스테론을 복용하기 시작해 루비(가명)는 수염이 자라는 등 여러 신체 변화를 겪었지만 호르몬제가 그녀의 성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데 아무

런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수술을 받는 대신 자신에 대한 감정을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 정체성 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이 숙고한 이후 선택하길 바란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스카이 뉴스에 따르면, 3~4세 정도의 어린 환자들이 성 정체성 문제로 정신분석 연구소인 태비스톡 포트만 NHS 재단을 찾았으며, 연구소가 제공한 자료에는 성전환 수술 환자가 10년 전보다 3200% 증가하는 기록적인 수치를 보였다.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10.6 ~ 10.19)

복음기도신문은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프랑스, '가족해체 반대' 대규모 시위

프랑스 정부가 독신 여성이나 여성 동성애자 커플에게도 체외수정(IVF) 등 난임·불임 시술을 허용하고 공공의료보험 혜택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생명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하자 전통적 가족 구조를 해체한다며 이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6일 파리에서 벌였다고 AFP가 보도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속히 떠나 음란과 타락으로 달려가는 한복판에 전통적인 가족 수호를 외치는 자들을 일으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프랑스 교회가 더 진리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주님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케 하옵소서.

홍콩 시위 체포자 2400명 중 3분의 1이 미성년자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에서 촉발돼 민주화 요구로 변진 홍콩 시위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경찰에 체포된 홍콩 시위대가 총 2379명이며 이중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750명으로 전체 체포 대상자의 3분의 1에 육박했다고 10일 홍콩 언론이 보도했다.

주님, 홍콩의 다음세대들이 분열하고 폭력을 행하는 사상 앞에 노출되어 휩쓸리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진정한 인권과 민주화는 무력과 폭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임을 홍콩의 다음세대에게 가르쳐주십시오.

우간다, 동성애자 사형 처벌 법안 5년 만에 재추진

아프리카 우간다의 로코도 윤리·청렴장관은 동성애자 사형 처벌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10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우간다 정부는 5년 전에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된 바 있다.

주님, 에이즈로 고통받았던 우간다가 누구보다 동성애가 얼마나 치명적인 죄악인지 알기에 동성애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법과 처벌로는 교정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간다가 복음의 빛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명으로 통치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해병대사령관, "북한 유사시 함박도 초토화 계획 세웠다"

이승도 해병대사령관(중장)이 15일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敵)은 북한이라면서 지난 2017년 북한 선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근처에 위치한 함박도에 접안 당시 유사시를 대비해 초토화 계획을 세웠고 함박도에 타격 장비가 배치된다면 큰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고 뉴시스가 15일 보도했다.

핵위협과 끊임없는 무력도발로 한국과 열강들을 위협해도 결국 얻는 것은 영원한 멸망뿐임을 북한 정권이 깨닫게 하셔서 헛된 시도를 버리고 창조주 앞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19년 10월 28일 ~ 11월 16일

10월 28일 ~ 11월 2일 ▶경기 성남 / 선한목자교회(윤**)010-4916-1263, ▶경기 광주 / 문광교회(최**)010-3380-5781, 10.28~29(10~17시) ▶강원 속초 / 동명교회(김**)010-7423-4953, 10.28~29,11.1~2(19~22시) ▶전남 신안 / 암태중부교회(김**)010-5186-0091, 10.28~11.2(08~20시) ▶서울 금천 / 예향교회(박**)010-4004-4326, 10.31~11.2(10~23시) ▶경기 고양 / 대화사랑교회(김**)010-4058-0675, 11.1(12시)~2(12시) ▶대구 중구 / 서원교회(권**)010-9275-7843, 그외 15교회 진행중.

11월 4일 ~ 11월 9일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전**)010-5337-2771, 11.4(0~24시) ▶울산 중구 / 태화교회(박**)010-9326-7767, 11.4~6(16~18시)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김**)010-8432-3698, 11.5(0~24시) ▶경기 수원 / 진흥교회(남**)010-8268-6879, 11.6(06시)~7(06시) ▶서울 서초 / 평안교회(송**)010-5791-9197, 11.7(0~24시) ▶전북 전주 / 사랑하는교회(이**)010-7709-0691, 11.8(20~22시) ▶경북 울릉 / 동산감리교회(조**)010-2639-8795, 11.9(06~12시) ▶서울 관악 / 신림감리교회(강**)010-3751-0493, 그외 15교회 진행중.

11월 11일 ~ 11월 16일 ▶서울 광진 / 빛과소금교회(권**)010-7754-1726, 11.13(09~17시) ▶경남 진주 / 예수로교회(윤**)010-7925-6004, 11.15(0~24시) ▶경남 김해 / 진영소망교회(김**)010-4567-8775, 11.15(10~18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구 김포전원)교회(강**)010-4128-0448, 그외 12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8267-4365)



공산주의에서 깨어난 우크라이나, 5년째 기도용사들 모이다

기도하러 가려고 일어날 때쯤 밖은 여전히 어두웠다. 방안의 한기가 내게 광장으로 가는 길은 몹시 추울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이불안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었지만, “우크라이나 친구들이 5년 동안 매일 기도하는 동안, 나는 겨우 3일 밖에 하지 않았잖아!”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호텔을 나와 얼어붙은 얼음더미와 깊은 진흙 웅덩이 길로 다니며 바람을 피해 고개를 숙인 뒤 스카프를 조금 더 단단하게 감싸고 새벽빛의 하르코프 자유광장으로 걸어갔다. 영하 3도에 불과했지만, 눈이 내리고 매서운 바람이 얼굴에 몰아쳤다. 하지만, 추위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 기도용사들의 커다란 미소와 따뜻한 악수, 그리고 불에 입맞춤을 받으며 나는 광장에 도착했다. 그 전염성 있는 기쁨은 내 마음부터 따뜻하게 해주었고,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을 기쁘게 느끼도록 해주었다.

눈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이 사람들을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게 만들었을까? 따뜻한 침대에서 기도할 수 있었을 텐데도 이 추운 날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72년의 공산당 통치기간 교회 폐쇄의 아픈 기억

2014년 3월 우크라이나 동북부에 있는 하르코프 거리에 탱크로 거리를 장악하고 총을 들고 마스크를 쓴 무리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모든 것을 격변으로 몰아넣고 공산주의 이후 누려온 23년간의 종교적 자유를 위협했다. 루간스크와 도네츠크의 인근 도시들도 분리주의자들의 공격을 받았으나, 하르코프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몰랐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도시에서 벌

어지는 실제 전투에 맞서고 싶은 사람들에게 매일 아침 7시에 이 광장에서 영적 전투를 위해 기도할 것을 촉구했다. 일주일 만에 150~200여 명의 신자들이 공산주의 아래 그들의 땅을 가린 영적 어둠을 무찌르기 위해 무릎을 꿇고 싸웠다. 이것은 정치적 싸움이 아니었고, 예배의 자유를 위한 전투였다. 즉,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 만나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믿음을 나누는 자유가 모두 위협받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영적 싸움이었다.

이 세대의 아버지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죽임을 당했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다. 공산주의라는 진짜 얼굴을 알고 있는 우리 앞에 그것이 다시 돌아오려고 하고 있었다. 우리는 무릎을 꿇었다.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 유일한 희망은 주님뿐입니다.” 침례 교단에 속한 V목사가 기도했다.

72년 공산당 통치 기간 동안 복음주의 교회는 폐쇄됐다. 성경을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은 지하에서 강제로 끌려 나와 심한 박해를 받았다. 두 세대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상황은 특히 더 악화됐다. 침례교도와 구소련 내 다른 개신교 신자들은 강제적으로 정신병원에 보내졌고, 긴 재판과 투옥을 견뎌야 했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부모의 권리마저 박탈당하기도 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의 기도와 신앙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가져다주었다. 그 이후 우크라이나는 동유럽의 성경 벨트가 되었다. 구소련 전역에 걸쳐 복음주의 생활의 중심지로, 새로운 교회로 나아가고 선교사를 파송하게 됐다.

동유럽의 성경벨트가 되려는 우크라이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은 현재 그들이 어린 시절부터 너무 잘 기억하고 있는 적대적인 태도를 복음주의자들에게 보이고 있다. 분리주의자들이 2014년 점령한 이후, 복음주의 교회는 폐쇄되고 점령 지역의 주요 도시에서 벌금을 부과 받았다.

우크라이나 형제, 자매들은 기도를 쉬지 않는다. 그들은 성령님이 사람들의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불어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실 때 전쟁 지역의 한복판에서 평화

가 올 것임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인들이 날씨가 어떠한 무릎을 꿇고 매일 기도하

는 이유다. V목사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위기인지 잘 알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 함께 기도하는 우크라이나 성도들(출처 : uninews.com 캡처)

“조국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음을 회개했다”

우크라이나 교회의 신실한 기도용사들이 보이고 있는 순종을 보며, 전 세계 교회는 교훈을 얻었다. 위기의 때에 성도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크라이나 성도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모았다.

첫째, 회개부터 시작하라.

2014년 3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의 주요 건물, 공항, 군사기지를 점령했다.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우크라이나 교회는 이 사건이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는 부르심이라고 느꼈다. 그리고 그들이 조국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음을 자책했다(딤후 2:1-3). 공산주의로부터 벗어난 이후 23년 동안, 신앙에 대한 열정은 식어 갔고 교회는 금세 안일해졌다.

“우리가 광장에서 기도를 시작했을 때, 나는 대통령이나 정부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해야 했습니다. 성경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도자들이 맘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어요.”라고 하르코프의 한 목사님의 아내이자 내게 통역으로 도와준 나디아가 말했다. 이제 그들은 권력을 가진 지도자가 좋은 삶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다.

둘째,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하르코프에서 폭력의 즉각적인 위협이 지나갔지만, 20명 정도 헌신적인 그룹이 지속적으로 만나며 신실하게 기도하고 있다. 5년 전 일어난 사건을 통해 위협의 위협과 평화가 얼마나 특권인지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다. 그

들은 위협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안전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뿐 아니라 교회와 거리에서 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모든 우크라이나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셋째, 사회적 또는 정치적 압력이 멈추도록 기도하라.

이들은 2014년 기도 모임이 시작되자 기도 모임을 해산하거나 감옥에 가야 한다고 위협하는 경찰뿐만 아니라 군인으로부터 폭력의 위협을 받기도 했다. “광장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우리는 우리가 구타당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두려웠어요.”라고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자 정교회 신자인 니나가 말했다. 두려움은 상상되지 않았다. 격렬한 전투 현장인 노테츠크에는 기도장막이 설치되었고, 기도 모임 지도자는 구타당하고 입원하였으나 결국 사망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서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라고 매일 아침 5시 30분에 광장으로 기도하러 가는 80세의 이반은 말했다.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으면 큰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주셨습니다.”

넷째,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찾으라.

이 기도 모임의 창립 멤버 중 두 명은 정교회 사제와 침례교 목사인 V이다. 전쟁의 두려움은 모든 교단과 교파의 성도들을 새롭고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로 모이게 했다.

V목사는 “기도하는 친구들이 그들의 세계를 넓히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을 보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말했다. 어느 누구도 새롭게 기도 모임에 나온 기도자에게 그들의 교회가 어느 교파나 교단에 속했는지 묻지 않는다. 모두 환영한다. 니나는 “교회가 서로 모였고, 기독교인들이 함께 나왔다.”고 말했다. “광장에서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고 말했다.

다섯째, 기도 안에서 교제하라.

광장으로 오는 긴 여정과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매일 함께 모이는 사람들은 이제 중보기도를 통한 격려와 교제를 누리고 있다. 기도 모임 안에서 활짝 웃고 포옹하고 웃는 모습은 그 기쁨이 불편함보다 더 크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V목사는 이러한 모습이 환영받는 일상이 되었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고, 성령 안에서 그들이 더 강건해지도록 만들었다고 말한다. “날씨가 어떻게든 간에, 기도하고 형제, 자매들과 교제한 후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나는 믿음의 날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갈 뿐이에요.”라고 이반은 말했다.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일어나려고 하면 발가락이 약간 저리고 솔직히 말하면 얼어버린다. 그러나 내 마음은 이러한 기도용사의 증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감사와 따뜻함이 넘쳐서 발가락이 얼어버린다는 사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GNPNEWS]

니콜 레이(IMB 작가)
출처: IMB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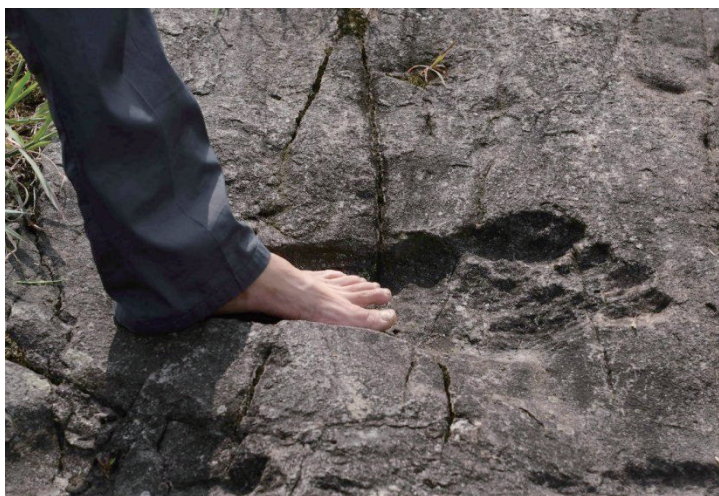
▶ 눈으로 덮인 하르코프 광장에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 (출처: IMB 캡처)

기획 | 창조 이야기 (24)

대홍수 이전에 살았던 노아 가족은 거인이었다

본지는 창조론 전문가인 미국 켄트 호빈드 박사의 창조론 강의를 요약, 소개한다. 호빈드 박사의 강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흥미롭게 설명하며, 진화론이 거짓 믿음 체계임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편집자>

로버트 와들로(1918~1940)는 이 시대에 역사상 키가 가장 큰 사람이다. 그의 신장은 8피트 11.25인치(약 2.74m)였고 신발 크기는 남들의 두 배가 넘었다. 골리앗이 약 9피트 5~6인치(약 2.9m) 정도로 추정되는데, 로버트 와들로는 아마 골리앗보다 2~3인치 정도밖에 작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이걸 ‘거대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홍수 전에는 사람들이 그보다 더 컸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 예로 11피트 6인치(3.5m)짜리 사람의 해골이 발견되기도 했다. 11피트 6인치의 키가 믿어지는가? 가끔씩 여자 분들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한다. “호빈드씨, 11피트짜리 해골이 남자라고 하는데 여자일수도 있잖아요.” 나는 생물과 해부학을 가르쳤기 때문에 남자해골과 여자해골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알고 있다. 갈비뼈 숫자를 헤아리는 방법으로 알아내는 것이 아니다. 사실 갈비뼈는 아담만 그 중 하나가 없었



▶ 2016년 중국 구이저우성에서 거인의 발자국이 발견됐다.(출처: tekcrispy.com 캡처)

고 그것도 잠시 동안만이었다. 인간 몸에서 잘라내면 다시 자라는 뼈가 딱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제일 아래에 있는 갈비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도마뱀의 꼬리를 잘라내면 다시 자라나듯 맨 아래 갈비뼈도 떼어내면 다시 자란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고 계신 일을 잘 아셨던 것은 아닐까? 남자와 여자해골을 구별하는 방법 중 하나는 측두하악관절을 보는 것이다. 이것이 많이 닳아 있으면 이견 여자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그를 잇는 또 다른 장신은 8피트 7인치(2.65m)로 현재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다고 한다. 손

도 매우 커서 그가 휴대폰을 쓰려고 하는 모습은 마치 아주 작은 장난감을 쥔 것 같아 쓰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2000년 전에 살았던 로마 황제 막시무스는 8피트 6인치(2.62m)였는데 ‘맥시멈(maximum, 최대치)’이라는 단어는 그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또한 9피트 8인치(2.98m) 해골이 인디애나에서 발견됐다. 버지니아 시티에서도 9피트(2.74m)짜리 해골이 2구가 발견됐다. 루이지애나의 무덤에서 발견된 해골들은 총 20구인데 모두가 9피트짜리였다. 10피트(3m)짜리 해골은 네바다의 험볼트 호수에서 발견됐다. 인디애나에서는 8~9피

트 범위의 8구의 거인이 무거운 구리 갑옷을 입은 채 발견됐다.

그러나 박물관들은 그것들에 관심이 없다. 왜 박물관들은 9피트짜리 해골을 전시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것일까? 혹시 진화론이라는 이론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가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해서 점점 커졌다는 이론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중요하다고 느끼게 해준다. ‘우리가 진화하고 있다.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점점 더 나아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진실은 그 정반대일 수 있다. 홍수 전에는 사람들이 훨씬 더 컸는데 그 후로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38파운드(18kg)짜리 도끼머리가 발견되었다. 우리가 10파운드(4.5kg)짜리 망치를 몇 분 동안 휘둘러본다면 누가 과연 38파운드짜리 도끼머리를 휘둘렀을지 궁금해 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인들에 대해 사람들이 아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것이 진화론에 반대되기 때문이다. 네바다의 위노머카에서 전시되었던 한 해골은 수년 전에 내려져서 지금은 지하실에 있다. 특별히 보여 달라고 요청해야 볼 수 있는데 거대한 인간 해골이다. 그 해골의 엄지

뼈는 일반 엄지 뼈의 2배가 된다.

터키의 아라랏산 가까이에 있는 무덤에서 해골이 발견됐다. 이에 터키 정부는 노아의 무덤을 찾았다고 말했다. 그 무덤에서 나온 해골은 12피트(3.65m)였다. 이것으로 생각해보면 그들이 사용한 규빗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클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사람들은 “한 남자와 세 아들이 그렇게 큰 배를 만들 수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당시의 아이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시절에는 거인들이 살았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 “당시에 땅에는 네 피림(giants, 거인)이 있었고...”(창 6:4)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고 말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면 왜 우리가 아이들에게 ‘원숭이’를 할아버지라고 가르치라고 돈을 내야 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헬거인(동굴인간)에 대한 진실은 무엇인가? 헬거인이 연대표 어디쯤에 들어가는 것인가? 성경이 진실이고 지구가 6000년밖에 안되었다면 헬거인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다음에는 헬거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계속> [GNPNEWS]



선교 통신

에콰도르 반정부 시위를 보며, “인디헤나의 상한 마음을 위해 기도하라”

지난 10월 초 레닌 모레노 에콰도르 대통령의 유류보조금 철회로 불붙었던 반정부 시위가 13일 시위를 주도한 에콰도르인디헤나총연맹(CONAIE)과 정부의 협상으로 11일 만에 끝났다.

모레노 대통령은 지난 1월 국제 통화기금(IMF)에 42억 달러(약 5조 원)의 금융지원을 받고 공무원 수를 줄이고 수십 년간 이어져온 유류보조금을 폐지하는 등 긴축 정책을 추진했다. 유류보조금이 없어지면서 기름값이 120% 오르자 버스 운송업자들이 시위를 시작했다. 또 인디헤나(원주민)들과 아마존 전사들도 창을 들고 합세했다. 일부 시위대가 유정(油井) 점거와 도로를 봉쇄하는 등 시위가 날로 과격해지면서 수도 키토에서 과야킬로 정부 기능을 일시 이전하기도 했다. 결국 국가교통청(ANT)은 공식성명을 통해 교통요금 인상에 관한 이전의 조치들을 철회하며 이 결정은 2019년 10월 15일 0시부터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시위로 모두 7명이 숨지고 1349명이 다쳤으며, 1152명이 연행됐다. 현재 키토는 시위 때 도로를 막았던 잔여물들을 정리하는 중이다.

이번 시위를 위해 기도하면서 시위에 함께 했던 원주민인 인디헤나 종족의 상황에 대해 접하게 됐다. 그 내용을 읽으며 인디헤나들의 마음이 어떤지 이해하게 되면서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2010년에 마지막 인구조사가 있었던 당시 전체 인구의 7%(약 100만 명)가 자신을 인디헤나로 인정했다. 하지만 최근 다른 통계에 따르면 1600만 에콰도르 국민 중 약 25%가 인디헤나로, 중남미에서 볼리비아 다음으로 원주민 비율이 높다. 인디헤나도 여러 종족으로 나뉜다. 키추아, 슈아르, 아추아르, 차치 등이 있고 이 모든 종족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가 ‘에콰도르인디헤나총연맹(CONAIE)’이다.

인디헤나는 에콰도르의 주인이었



▶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인디헤나들(출처: bristolatino.co.uk 캡처)

으나 스페인의 식민지를 거치면서 산으로 쫓겨나게 됐다. 이들은 산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며 매우 빈곤한 삶을 살고 있다. 수년 전 인디헤나족과 관련된 대형 교통사고를 다루던 한 변호사는 사망자 유가족들과 합의를 한 후 배상금을 지급하려던 과정에서 그들이 출생신고도 되어 있지 않아 출생신고까지 해야 했다면서 법의 보호망 밖에 있는 그들의 처지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이 땅의 원래 주인이면서도 힘

이 없는 이유로 2등 혹은 3등 시민으로 취급 받는 열등감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 인디헤나들은 토지 문제, 교육문제, 자치권문제, 물 사용문제 등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어려운 생활로 국경지역에서는 기름을 밀수출해 먹고사는 부류도 있던 터에 유류보조금 철회는 평소 사회적 차별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인디헤나 쪽으로 그 불이 옮겨 붙은 모양새가 된 것이다. 인디헤나들은 이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한번 자기 목소리를 내

는 것에 죽음을 각오한다. 그래서 이미 과거 반정부 시위로 세 차례 정부를 무너뜨린 전력이 있다. 일부에서는 정권이 바뀌기를 원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믿는 나로서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지켜보며 기도하고 있다. 인디헤나들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가톨릭 배경의 인디헤나들의 복음화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이미 한 몸으로 회복하신 복음이 이 땅의 영혼들에게 성취되기를 기도한다. [GNPNEWS]

에콰도르 = 유니아(본지통신원)

* 선교지 소식을 제보해 주세요.

긴급한 열방의 상황이나 숨겨져 있는 부흥의 소식을 알려주세요. 독자들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gnpnews@gnmedia.org, ☎ 010-6326-4641, 070-7417-0408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잔치가 열리면 땅끝 어디든 갈 거예요”

예수는 나의 힘이에요! L국 복음캠프 섬김이 ‘예힘’



©복음기도신문

L국에서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4박 5일간 현지인을 대상으로 복음캠프가 열렸다. 이 캠프를 섬기기 위해 자원하여 자비량으로 출국했던 L국 복음캠프 섬김이 ‘예힘’팀 황동순 권사(75. 인천 선린감리교회), 정순복 전도사(60. 인천교회), 황정자 집사(55. 인천 예그린교회)를 만났다.

- 어떻게 L국에 자원하여 캠프 섬김이로 참여하셨나요?

황정자(이하 황): “지난 상반기에 한 선교단체에서 주관하는 선교관학교를 섬기면서 마지막 과정으로 2주 동안 해외 아웃리치를 다녀온 곳이 L국이었어요. 마약을 재배하는 지역에 갔었는데 그곳 사람들의 삶이 비참했어요. 몇 달 후 L국에 복음캠프가 예정되어 있다

요. 저는 해외 아웃리치에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때 항상 계시록 7장 9절이 생각나요. 말은 안통해도 ‘모든 족속과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요. 한번은 에스겔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마른 뼈들에게 대언할 때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서는 말씀을 보며 ‘대언자가 필요하구나, 복음을 선포하는 통로인 강사가 필요하고 그 일이 일어나도록 섬기는 이가 필요하구나.’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도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요.”

황동순(이하 동): “저는 황 집사님 얘기를 듣고 내가 먼저 가겠다고 했어요. 나이 들어 뒤늦게 복음학교에 다녀와서 훈련을 받으면서 작년엔 L국에 아웃리치를 갔었죠.

내가 정말 아이들을 돌볼 수 있을지 걱정이 됐어요. 청소를 해놓으면 흙을 묻혀 들어오는 아이들, 칭얼거리는 아이들. 캠프가 시작되기 전에 허리까지 깨끗했어요. 약을 먹고 참으며 훈련생들의 기도제목을 받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목마름이 정말 컸어요. 이분들이 복음을 잘 듣도록 아기들을 잘 돌봐야겠다는 마음에 젖먹이 아기를 안고 강의 중간 중간 쉬는 시간에 젖을 먹이러 뛰어갔어요. 하지만 둘째 날은 지치고 힘들었어요. 아이들이 옷에 용변을 봤는데 욕실에 옷을 던져놓고 누군가 하겠지 했죠. 아이들을 재워놓고 잠시 마태복음 산상수훈 외우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하는 말씀 앞에서 제 마음이 부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처음 L국에 오게 하신 마음이 다시 기억났어요. 내 열심과 최선을 아이들을 잘 돌보아서 이 아이들 엄마 아빠가 복음을 잘 듣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있는 이 자리가 미래의 하나님의 종들을 키우는 자리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감격이었어요. 한참을 주님과 기도하고 다시 기운을 내서 욕실에 있는 똥 묻은 옷을 맨손으로 빼는데 아무렇지 않았어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선교사로 나가면 어떤 상황에 처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아이들과 손짓 발짓으로 이야기하며 한 명 한 명 기도해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니 짜증도 안 나고 손이 수고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것이었어요. 아이들을 좋아하지도 않고 섬길 수도 없는 약한 몸인 제가 복음캠프를 섬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만나기 위해 불러내신 것이었어요. 약속의 말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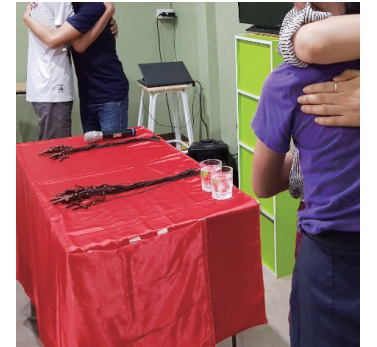
결국은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순간들, 모든 소망의 근거가 되는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시간들이 오리라 감사해요.”

허리 아파도 아기 돌보기와 중보기도는 할 수 있어

동: “저는 나이는 제일 많아도 이런 선교현장에서 섬기는 것은 헛방아리예요. L국 상황은 아주 열악해요. 옛날 시골서 살던 기억이 많이 났어요. 저도 처음으로 아기를 돌봤는데 날이 더운데 에어컨도 없고, 따뜻한 선풍기 바람만 나고, 아이들이 화장실 간다, 물 달라 해도 말이 통해야 말이지요. 첫날은 아이들 7명을 돌봤어요. 24살 자매의 5개월 된 아기를 보게 됐어요. 그 자매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혼을 당했대요.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의 아이였어요. 시간 맞춰 강의가 끝나면 아기들 젖을 먹이러 가야 하는데 저보다 젊은 황 집사님은 지혜롭게 잘 하는데 비해 저는 너무 서툴렀어요. 다음 날은 4살, 6살 애들을 보면서 빨래를 하는데 비누칠을 5번을 해도 애들 옷에서 구멍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애들 엄마 아빠가 24살, 25살인데 글을 몰라요. 또 한 아이는 “우리 엄마 야채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요. 엄마가 글을 모르니 계산도 잘 못해서 장사가 힘든데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저도 어려서 충북 음성에서 가난하게 살아서 그 세 가정을 위해 더 기도하게 됐어요. L국은 가난하고 힘든 곳이라 더 기도가 되고 좋은 경향이 되고 은혜가 되었어요.”

- 주님의 마음을 절절하게 부여주셨네요. 전도사님은 어떤 직임을 맡으셨나요?

정: “저는 주방을 섬겼어요. 50인분이 넘는 밥을 해야 하는데 섬김이는 3명이었어요. 제가 가장 연약한 부분이 주방이에요. 막막하고 어떻게 섬겨야 할지 그림이 전혀 없었죠. 또 땀이 많고 모기에 잘 물리는 체질인데 한참 땡기열 이야기가 나오던 때라 슬그머니 두려움도 생겼어요. 그곳 주방은 밖에 있어서 수풀도 많고 모기도 많았거든요. 첫날 섬김이 모임을 하



▶ L국 복음캠프 마지막 성찬식에서 새생명을 축복하는 조장 선생님과 훈련생(제공: L국 복음캠프)

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 캠프에 끼워 주셨는데 뭘 두려워하나.’라는 마음에 정직하게 나누고 염려를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다행히 현지에서 주방을 잘 아시는 분이 참여해서 맛을 내고 음식을 만들어주신 덕분에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어요. 제가 이번 복음캠프를 통해 본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었어요. L국으로 출국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주방도, 진행팀도, 아기 돌봄의 섬김 모두 ‘힘에 지나도록’ 하게 하셨어요. 강사로 섬긴 선교사님도 4박 5일 동안 혼자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한글로 된 강의록을 보시고 L국 언어로 하면, 현지 소수민족 청년이 다시 통역을 했어요. 선교사님은 녹내장이 있는데도 힘에 지나도록 자기를 드린 거죠. 할 만하고 여유 있는 때보다 어려울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요. 캠프 준비도 다 되지 않았는데 ‘정말 이때에 해야 하나?’ 그런 질문이 들기도 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감정이 들기도 하지만 그것이 결론이 아니죠. 내 마음이 진리 쪽으로 앞어지는 은혜를 주셨어요.”

- 캠프가 끝난 후에는 어떠셨나요?

정: “마지막 날 저녁 후기모임을 하는데 평소에는 예배 끝나면 집에 가기 바빴던 사람들이 자리를 떠날



▶ L국 복음캠프에 참석한 청소년 훈련생들의 모습(제공: L국 복음캠프)

는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복음을 듣고 살아난 것처럼 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살아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주님께 말씀을 구했을 때 시편 107편 8~9절을 주셨어요. “여호와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도...” 날마다 사모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캠프 훈련생은 13세~59세까지의 30여 명의 현지 소수민족들이었는데 청년들이 많았어요. 주님께서 이들에게 정말 주님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받으시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50~70대로 구성된 단기선교 아웃리치

-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합류하게 되셨나요?

정순복(정): “L국 아웃리치에서 황 집사님과 한 팀이었는데 캠프를 섬길 마음을 나눠주면서 함께 오지 않겠냐고 해서 아멘하고 참여했어

그때 한 선교사님 댁에서 일주일 내내 24시간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느헤미야52기도에 참여했어요. 나이도 많고, 눈도 건조하고, 한글도 겨우 읽어서 기도 책을 보고 기도하는 것도 자신이 없었는데 일주일 동안 계속 책을 보고 기도했어요. 진짜 하나님 은혜가 이건가보다! 싶었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여기서 계속 함께 기도하자고 하셨던 게 항상 마음에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그런 믿음도 없고 선교에 대한 자신도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초 교회 장로님이 제 얘길 들으시더니 망설이지 말고 순종하라는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집사님에게 L국 캠프 이야기를 듣고 얼른 붙들고 함께 갔어요.”

- 정말 주님의 때에 모두 한 마음으로 세워 주셨네요. 캠프에서는 어떤 영역을 섬기셨나요?

황: “아기 돌보기 섬김과 중보기도 직임을 주셨어요. 대상포진에 허리통증까지 병을 달고 사는



▶ L국 복음캠프에서의 식사(제공: L국 복음캠프)

(6면에 계속)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하나님의 꿈 (3)

다시 회복될 아담의 노래, 가정의 연합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연합이 '임마누엘'이라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합 또한 하나님의 꿈이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창 2:18)

신부 하와를 향한 아담의 첫 고백을 들어보라!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가 칭하리라 하니라"(창 2:23)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라고 노래한 아담의 고백은 저주 받은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외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한 맺힌 절규에서 흑인 노예들의 끔찍한 실상을 짐작할 수 있었듯이, 인류 보편의 역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차등화, 계층화하여 분열시킨 저주 받은 역

사였다. 이 역사는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에서 완벽하게 빗나간 왜곡이었다.

모든 인간은 소중하게 지음 받았고, 한 아버지 아담의 자녀들이다. 그러나 인간들이 영위(營爲)한 역사는 나라와 민족들의 끊임없는 분열과 분쟁이었다. 이 역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본능으로 사는 짐승도 저지르지 않는, 소위 만물의 영장(靈長)이라는 인간의 추악한 실상이다.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국가들의 연합이다. UN이라는 국제연합 기구를 만들어 놓고, 돈 모으고, 뜻 모아도 자국의 이익에 눈 먼 나라들과 지도자들의 죄성(罪性)을 넘어선 어떤 연합도 만무(萬無)하다. 인류 보편의 역사는 서로 등쳐먹고, 빼앗고, 정복하고, 억압한 역사였을 뿐이다. 아담을 한 아버지로 둔, 한 몸에서 나온 자들의 역사였다.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라고 고백했던 아담의 노래는 이렇게 실패한 노래가 되고 말았다. 이 노래는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가장 먼 노래가 되고 말았다. 가장 가깝지만 정말 가까워질 수 없는 부부 사이, 행복하자고 만나 가정을 이루었지만, 우리네 가정은 비극을 양산해 내는 곳이 되어 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는 데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가정의 연합'이라는 꿈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은 지금도 꿈을 꾸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사신 신부된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교회의 모습을 부부 사이의 모델로 보여 주고 계신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일러스트=노주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

경하라"(엡 5:29-33)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꿈, 가정의 연합. 주님이 약속해 주셨다! (2017년 7월)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RETURN to the GOSPEL

2019 다시복음앞에 금식기도성회

2019 다시복음앞에

십자가가 복음

2011 다시복음앞에 '오직 복음으로'
2013 다시복음앞에 '오직 성령으로'
2015 다시복음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2016 금식기도성회 '오직 하나님께 영광'
2017 다시복음앞에 '오직 믿음으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갈라디아서 6:14]

2019.10.31(목) 오전 10시~ 오후 10시

장소 | 선한목자교회 (담임: 유기성 목사)

주관 | 복음기도동맹

주 제 : '십자가 복음'(갈라디아서 6:14)
주관·주최 : 복음기도동맹
참 가 비 : 현 금
문 의 : 복음기도동맹 사무국
010-7707-9668, 070-4144-0104
이메일 gnpall@daum.net

강사진 | (가나다순)



강장구 선교사
(순회선교사, 영남(사)역사)



김경석 목사
(강사총회교회)



김용의 선교사
(LOG Mission)



이중훈 목사
(WMC 한국대표)



허도균 목사
(서울신학대학교 전도부 교수)



Interview (5면에 이어)

모두 '힘에 지나도록' 섬김 통해 기쁨 누리

줄 몰랐어요. 부족어로 통역했던 형제는 '통역으로 부르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했고, 사람들은 주일예배에서도 복음을 계속 들려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요. 한 청년은 나중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서 캠프에서 들은 복음 내용을 노트로 정리하고 있다고 해요. 어찌 보면 우리처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독교적 배경이 많지 않고, 누군가는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오고,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으로 이해하기도 했지만 주님이 그들을 살리시고 신부답게 빛으실 것을 믿어요. 우리에게는 당장 그들이 변화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나 역시 옛 사람의 흔적이 지워지는데 시간이 걸린 것처럼 그들도 복음을 살아내기까지 일하실 주님을 믿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예힘'팀은 8월 21일~9월 11일까지 총 3주간 복음과 기도로 L국을 섬겼다. 캠프 후에는 L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느헤미야52기도로 섬겼다. 그곳에서 텅기열에 걸려 심하게 앓기도 했다. 캠프를 섬겼던 L국의 젊은 자매 선교사도, 연로한 선교사님도 모두 텅기열을 앓았다. C.T.스터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 없다."고 했다. 힘에 지나도록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된 그 '열심'이 오늘도 열방을 향해 흘러가기에 우리의 생명도 힘에 지나도록 드러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한다. [GNPNEWS]

E.J.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성도의 삶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악한 자들의 싸움이다.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고백을 소개한다. <편집자>

아이의 출산을 통해 믿음과 사랑을 배웠어요

1년 동안 기다렸던 둘째 아이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 막상 임신하게 되니 아이의 출산부터 산후조리까지 걱정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선교지로 떠나기 위해 모든 것을 정리한 터여서 어떤 선택도 쉽지 않았다. 그때 주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롬 1:17)는 말씀을 주셨다. 먼저는 수술일자를 잡지 않고 자연 진통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산후조리 역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곳에서 하기로 했다. 친정도, 시댁도 산후조리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다. 그렇다고 산후조리원에 갈 형편도 안 됐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다. 산달을 앞둔 어느 날 예전에 교제하던 교회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교제하며 우리의 믿음의 걸음에 대해 나누고 산후조리 할 곳을 위해 기도를

부탁했다. 그런데 전도사님은 선뜻 이곳에서 산후조리를 하라고 하셨다. 전도사님과 남편 집사님은 부모님처럼 우리를 돌봐 주시고 아이들을 사랑해 주셨다. 나의 작은 믿음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셨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아이가 태어나, 교회 지체들의 사랑과 섬김으로 평안히 쉬게 해 주셨다. 믿음으로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이시다. (전북 전주 정진)

20년 노래를 불렀는데... 갑자기 호흡이 안돼요

어렸을 때부터 시작한 음악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내 존재이자 삶의 일부였다. 무대에 설 때마다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연주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소리의 풍성함과 연륜이 더해지면서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충분한 연습을 하지 않아도,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이제는 어느 정도는 노래를 잘 부르는 수준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입술로는 내가 아닌 주님이 하신다고 고백했지만, 실제로는 내 수준으로 노래하고 있었다. 복음을 만나고 내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손가락 하나도 들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설교를 통해 듣고 동의했지만 건강한 육신을 가진 나에게는 그 말씀이 실제 되기가 어려웠다. 그러다 최근에 나는 천식 진단을 받았다. 폐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호흡이 잘 되지 않는다고 했다. 호흡은 노래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보니 노래할 때 호흡이 힘든 상황들을 자주 겪었다. 그때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좀 더 잘해 보려고 온갖 노력을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찬양 리허설 중에 호흡이 채 한마디를 유지하지 못해 노래가 똑똑 끊겼다. 숨은 차오르고 쓰러질 것만 같았다. 나의 경험과 연륜을 의지해서 어떻게든 불러 보려는 시도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내 차례가 되었다. 아니 이제는 정말 주님이 하실 차례였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구하는 내내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노래해 주셨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말씀이 실제 되는 순간이었다. 난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일러스트=고은선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내 수준이 아닌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찬양하게 될 것이다. 주님 오실 그 날까지. (전남 광주 안은유)

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을 배운다

가끔 마트에서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사달라고 투정을 부리는 아이들을 본 적이 있었다. 그때는 사랑스런 내 딸이 그 아이들 중 하나가 될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좋고 싫음이 분명해진 15개월 된 딸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무조건 해야 하는 생떼쟁이다. 하루

는 심하게 고집을 부리는 딸 때문에 지친 나머지 ‘엄마’라는 자리에 사표를 내고 싶었다. 그 생각과 동시에 에베소서 2장 말씀이 생각났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엡 2:4~5)

나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살던 나. 이런 나의 옛 사람의 모습은 15개월 딸의 생떼와 똑 닮은 모습이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은 꾸준히 참아 주고 계셨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내가 지칠 만도 하신데, 지금까지도 아직 사표를 내지 않으셨다. 이 하나님을 생각하니 내 마음이 얼마나 좁은지 보게 되면서 딸아이를 꼭 끌어안을 수 있었다. 서투른 육아에 지친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만이 나의 힘이 된다. (인천 부평 오세영) [GNPNEWS]

* 믿음의 글을 받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채택되신 분에게는 본지에서 마련한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gnpnews@gnmedia.org
☎ 070-7417-0408



결만 번지르르한 평양아파트, 겨울마다 난방문제 심각

이 시대 가장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평양 주민들이 현재 아파트에 살면서도 전력공급이 되지 않아 추위를 대비해 무동력 난방장치를 준비해야 하는 한편, 겨울나기 식량장만이 어렵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 12일 보도했다.

RFA의 평양소식통은 “요즘 평양 주민들은 추운 겨울을 대비한 월동준비를 다그치고 있다.”면서 “하지만 평범한 서민들은 겨울 식량 마련 등 제대로 된 월동준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평양시에서 10월은 서둘러서 월동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라면서 “비록 평양시민이라 해도 뇌물 등 부수입을 챙길 수 없는 서민들은 난방과 식량 문제를 해

결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평양 일반 주민, 겨울나기 힘들어

소식통은 또 “국가로부터 생활편의를 보장받는 특별공급대상을 제외한 일반 주민들은 자체로 겨울나기(겨울나기)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평양의 일반 주민들은 겨울 동안에 적어도 3t 정도의 석탄을 소비하기 때문에 한 겨울을 나는데 100달러 이상의 난방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은 이어 “잘사는 사람에게 100달러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쌀감 확보와 난방설비는 심각한 문제”라며 “결만 번지르르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지만 정작 내부에 난방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 자체로 무동력 난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평양시의 또 다른 주민소식통은 같은 날 “요

즘 평양의 아파트 주민들은 난방설비와 쌀감준비 등 월동준비에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다.”면서 “아파트나 단층집이나 할 것 없이 전력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에서 자체로 무동력 난방장치를 따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무동력 난방장치는 취사와 난방을 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석탄을 연료로 물을 데운 다음 폴리에틸렌 수지관을 통해 방관을 덮히는 방식인데 취사도 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주민들이 모두 이 무동력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력난이 심해 평양시도 시간제 전기가 공급되면서 온풍기와 같은 전열기구는 사용할 엄두를 못내고 있다.”면서 “당장 겨울을 날 식량을 준비하고 부식으로 감장 준비도 해야 하는 형편에서 난방설비까지 따로 구비해야 하는 평양시민들은 이중삼중의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 평양의 아파트 단지 거리(출처: mapio.net 캡처)



종을 통한 역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섬기는 자는 결코 지지 않는다. 그 섬김의 동기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소명’은 내면의 동기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태로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 다른 목표들을 다 버리게 한다.

주님의 선한 역사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배우라. 또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그 역사가 일어났음을 기억하라. 마귀가 가장 억울해하는 순간은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도구가 되었을 때다. 마귀가 무엇을 하던 하나님은 그 모든 악을 초월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 [GNPNEWS]

<제자도(2012), 오스왈드 챔버스>



뷰즈인 아트
Views in Art

김경선 개인전 <한 발짝>

“절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한 발짝 다가서게 했다”

온전히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신발은 나의 온전하지 않은 육체를 표현한다. 그 온전치 않은 모습은 과연 ‘장애를 가진 작가인 나의 모습 만인가?’라고 자문한다. 그것이 내가 가진 ‘장애라는 한계인가?’라는 자문 앞에 모든 인간이 온전치 않음을 얘기하고 싶다. 그 온전치 않음을 깨달았을 때 느꼈던 절망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했다. 예수 앞에 선 모습을 보여주는 하늘의 그림을 사람들에게 소개했다.

어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된 만남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우연히 해가 지는 하늘을 보며 그 경이로운 아름다움 앞에 ‘하늘에 하나님이 계실까?’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고 보니 나의 육체와 상황이 절망이 아니라 죄라는 존재로 태어난 것이 절망이었다. 내가 죄, 그 자체라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에 그림을 그릴 때 하나님을 표현하고 싶어 하늘을 그리게 되었다. 최근에 그린 ‘신발 안의 하늘’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말

하고 싶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야 우리가 온전해지는 신발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싶었다. 하늘보다도 크고 아름다우며 경이롭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사람들이 서기를 바란다. 그 한 발짝이 되기를, 그리고 작가의 한

발짝이 되기를...
‘신발 안의 하늘’은 내 안에 계신 주님
개인전을 열면서 여러 걸리는 게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것밖에는

말할 것도 없는 게 사실이었다. 그래서 도록(都錄)에 넣어야 할 작가 노트에도 복음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썼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내게 대놓고 전도한다고 뭐라고 하더라도 한다면 괜찮을까 생각하기도 했다. 사람들의 말에 내 믿음

을 점검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기도 했다. 그림을 그리며 세상의 이야기가 들려올 땐, 내 마음도 이리저리 흔들렸다. 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릴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었다. [GNPNEWS]

김경선(작가)



▶ 작품설명: <내안의 그(지금,영원히)>(좌), 2019년, 캔버스에 유화, 40.9x31.8cm



▶ 작품설명: <은혜>, 2019년, 캔버스에 유화, 72.7x60.6cm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킥보드 덕분에 다치면서 주님을 더욱 알게 됐어요”

우리 남편은 아이들과 잘 놀아주는 반면 나는 아이들과 잘 놀아주지 못한다. 하루는 남편에게 아이들과 노는 게 힘들지 않냐고 물었을 때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냥 내가 재밌으면 돼. 재밌으면 아이랑 뭘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놀게 돼.”

방학을 틈타 나도 재미를 느끼며 아이와 공감도 하고 같이 놀아주고 싶었다. 남편과 아이가 타는 킥보드가 재미있어 보였다. 나도 킥보드를 타기 시작했다. 타보니 정말 재밌었다. 무언가를 도전해서 할 수 있다는 성취감도 있었다.

아이는 산책을 갈 때마다 킥보드를 가지고 나섰다. 하지만 산책하는 길엔 내리막길이 길게 늘어서 있어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다. 킥보드를 타고 언덕을 내려가면 차가 오는 소리도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길도 좁으니 다치진 않을까 걱정했다. 내가 잔소리를 해도 말을 안 듣는 아들 때문에 노심초사였다. 그런데 남편은 나와 달랐다. 내가 걱정을 하고 있으면 남편은 “내가 뛰어가서 차 오는지 볼게!”라며 아이를 도와줬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부끄럽게 오히려 내가 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져 팔꿈치가 부러졌다. 그날도 아이는 산책하는 길에 킥보드를 가지고 나섰다. 재밌어 보여 그날은 내가 타고 내려갔다. 언덕을 내리달리는 빠른 속도에 무서워하자 남편이 잡아줬다. 평지에서만 타다가 언덕에서의

남편을 불렀다. 그런데 뛰어오는 소리가 안 들렸다! 덜컥 겁이 났다. 점점 빨라지는 속도에 두려워 그만 뛰어내리다 넘어졌다. 달려온 남편에게 나는 연신 “왜 나를 안 잡아줬어! 당신이 안 잡아줘서 내가 이렇게 다친거야~!”라고 말했다.

그렇게 남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고 있을 때 주님이 내 생각을 바

나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다쳤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실 남편은 내가 불렀을 때 뛰어오려고 했다. 믿음이 없어 그것을 못 기다리고 내가 뛰어내린 것이다.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며 주님이 나에게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생각이 들었다. 곧 원망의 마음도 사라졌다. 주님의 허락하심으로 받으니까 마음이 평안했다. 수술을 해야 하고 불편한 생활에 여러 댓가지불이 있었지만 아깝지 않았다. 무엇으로도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지식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시간이었다. 이 시간이 감사했다.

사고 후 만나는 사람마다 이 나이에 왜 킥보드를 타서 다치느냐고 한 마디씩 했다. 그때마다 자신 있게 “주님이 하셨어요! 은혜가 커요.”라고 얘기했다. 내 안에는 지금 남들이 모르는 주님과 나만의 기쁨이 있다. 앞으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갈 시간이 기대가 된다.

[GNPNEWS]

손미숙



일러스트=이수진

속도를 경험하니 너무 재밌었다. 첫 번째 언덕을 지나고 두 번째 언덕에서도 남편이 잡아 줄거라 생각했다. 두 번째 언덕을 내려가며

끼우셨다. ‘남편이 나를 안 잡아줘서 내가 다친 것인가?’라는 질문에 무섭고 두려울 때 물에 빠졌던 베드로가 생각났다. 남편 때문이 아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 651001-01-343666
예금주 :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19. 10. 3 ~ 10. 17 (가나다 순)
개인 고은영 권순호 김경선 김다경 김사회 김선희 김수미 김유남 박성규 손미숙 유국주 이삼연 이 순 이영순 이준진 이현희 장근혜 정효진 차인순 최근희 최순덕 최정숙 황지환 황하임 무명
교회 및 단체 OM조상국 복음기도신학연구소 샘물교회 웹 양덕원감리교회 예수가족교회 은혜신일교회 전주온누리교회 주소망교회 험시바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김강호, 인쇄인: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